

■ 사진으로 보는 동네 소식



대연1동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20일 직접 만든 불고기, 소고기국, 김치겉절이, 오이소박이, 멸치볶음 등 밑반찬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대연3동 생활안전협의회, 대연지구대, 바르게살기위원회 및 주민센터는 지난 19일 안전마을 조성을 위한 민·관·경 합동순찰 활동을 펼쳤다.



대연4동 적십자봉사회는 지난 6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10세대를 대상으로 쌀, 두유, 유지, 라면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대연5동 제일집, 대연교회, 김유순대구불집, 산미박, 양산박, 정운곶 등 관내 업체에서 후원한 쌀 등의 성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대연6동 새마을문고는 지난 18일 어린이 13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의 동화 구연, 독서 활동 등 썬디도서관 체험활동을 운영했다.



용호1동 사랑나눔회는 지난 9일 추석을 맞아 관내 경로당 13곳을 방문해 라면 및 전병세트를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인부를 살폈다.



용호2동 새마을문고는 지난 6일 초등학생 35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8회 독서골든벨' 행사를 개최해 학생들의 독서인식을 고취했다.



용호3동 단체장협의회, 용호남교회, 휴엔디, 모두마트는 지난 5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위해 쌀과 라면 등 성품을 전달했다.

마을 축제로 하나 되는 우리 동네

꽃은비도 막지 못한 주민 화합의 장

보고, 즐기고, 느끼고... 대연4동 3GO! 한마당 축제

지난 28일 대연4동 주민센터와 대연4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한 '대연4동 3GO! 한마당 축제'가 석포초등학교에서 개최됐다.

‘보GO, 즐기GO, 느끼GO’라는 주제로 올해 처음 개최된 이 행사에서는 주민들이 서로 물품을 사고 파는 나눔의 장인 플라마켓과 함께 남구보건소, 감만

복지관의 홍보부스 운영, 주민자치회 서예교실과 문인화교실 수강생들의 작품 전시 및 3D펜 체험 등 각종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 부스 등이 마련돼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의 마을 주민들이 다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 풍물교실, 노래교실, 라인댄스 교실 발

표회 및 인근 학교, 주민들의 재능기부로 구성된 공연도 펼쳐졌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수강생들은 수업을 통해 갖고 닦은 실력을 뽐냈고, 학생들의 오키나와 공연과 댄스 공연, 주민들의 통기타와 핸드벨 공연은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다. 비가 오는 곳은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성원을 보냈다.

주영식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축제에 꽃은 날씨에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뜻깊



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나간다는 포부를 밝혔다.

문진상 주무관(대연4동)

주민 화합 이룬 ‘어울림 한마당’

마을축제로 결실 맺은 용호3동 주민자치프로그램

비 예보가 무색할 정도로 화창했던 지난 28일 아침, 한가로이 새들이 지저귀

는 소리만 들리던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 원형광장이 북적이기 시작했다. 결



주민들이 직접 만드는 ‘우암동 마을 잔치’

‘양달행복마을 에코데이’로 완성된 따뜻한 왓(warm)동

지난 27일, 우암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우암양달행복마을 공동체가 주최한 ‘양달행복마을 에코데이’가 개최되었다. 올해로 5회째인 이날 행사에는 주민자치회, 우암양달행복마을공동체, 새마을부녀회, 마을건강센터, 네트워킹단체 등 다양한 단체가 참여해 먹거리, 볼거리, 애저거리가 풍성한 마을 잔치 한마당을 펼쳤다.

썬디공원에서는 주민들이 마을에서 운영했던 자치프로그램에 참여해 갖고 닦은 솜씨를 선보이는 행사가 있었다. 서예작품과 수목화는 선선한 가을 날씨와

조화를 이뤘고, 어르신 한글교실에서는 세월의 발자취와 녹록치 않았던 삶을 진솔하게 표현한 시화전을 마련해 관람객들로 하여금 가슴쿵쿵한 감동을 전했다. 그밖에도 수강생들이 직접 만든 천연비누, 생활도자기, 모자, 파우치, 소품들은 플라마켓에서 판매됐다.

마을건강센터에서는 주민들의 혈압측정과 맞춤형 건강상담, 생활습관개선을 통해 일상 속에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줬으며 마을건강센터 프로그램도 홍보했다.

마당 한편, 고소한 뽕새를 따라 발길이 머문 곳은 부침개와 막걸리, 국수, 커피 등 먹거리 장터였다. 이날 먹거리 장터의 판매수의 일부는 기부되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인다고 한다.

지난 달 조성을 마친 도란도란 주민센터에서는 주민자치회 발표 공연이 있었다. 식전행사인 주민의 색소폰 연주를 시작으로 노래교실, 레크댄스, 건강에어로빅, 난타 등 수강생들이 다양한 솜씨를 선보여 잔치의 흥을 더했다.

특히,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마을사업 중 ‘클린업 분리수거대’ 팀이 분리수거 교육을 마련했는데 교육이 끝난 이후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이 쓰레기를 자진해서 분리하고 정리해 하나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주민은 “마을 사람



들과 소통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소감과 함께 내년에는 체험 이벤트를 통해 폭넓은 주민 참여를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는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주민이 채워가는 마을 스토리, 소통하고 정이 넘치는 따뜻한 왓(warm)동을 위한 주민들의 노력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 주미옥 명예기자

감만에 놀자? 감만애(愛) 놀자!

썬아온 실력 뽐낸 감만1동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봉사활동이나 동네 행사 참석자 중중 찾았던 감만창의문화촌 복지관에 평소와



달리 은은한 커피향이 풍겨온다. 그리고 평소보다 많은 주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복지관은 어느새 주민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다.

지난 27일 개최된 감만1동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감만에 놀자’가 만든 풍경이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들이 매주 썬아올린 실력을 선보였던 날이자, 흠뻑했던 주민들이 하나되어 신나게 놀았던 날이기도 했다.

복지관을 가득 메운 커피향은 양지골 복합센터에서 4년 넘게 봉사를 하고 있

는 ‘디담카페’ 봉사자들이 마련했다. 가을 분위기와 어울리는 맛있는 커피로 이날 행사를 찾은 주민들을 제일 먼저 맞이했다.

코끝을 그득하게 물들인 커피 한 잔을 들고 입장하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들이 만든 다양한 작품들이 관람객들의 볼거리를 풍성하게 만들었다. 손뜨개, 입화, 아로마테라피, 서예 등 서툰지만 주민들의 손길이 닿은 작품들은 전시회장을 꽉 채우기에 충분했다.

갯기를 올리며 시끌벅적 웃음소리를 따라 가보니 골목 화장을 하고 예쁜 옷으로 갈아입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다. 노래교실, 단학교실, 라인댄스교실, 요가교실, 웃음교실, 사물놀이교실의 수강생들로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주민들 앞에 선보이고자 준비 중이었다. 설렘

동명병원, 이웃돕기 쌀 기탁

부산동명병원은 지난 20일 남구에 쌀10kg 100포(25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기탁받은 자비 나눔의 쌀은 지역 내 저소득 소외계층 10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부산동명병원은 지난 2017년부터 매년 남구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쌀을 기탁해왔다. 현재까지 약 750만원 상당의 쌀을 남구에 기탁했다. 주지 승찬님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정에 자비 나눔의 쌀이 전달되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BNK금융그룹, 생필품 상자 전달

BNK금융그룹희망나눔재단은 지난 9일 남구에 ‘2019년 추석맞이 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2천5백만원 상당의 생필품 500상자를 기탁했다. 기탁된 생필품 중 일부는 이날 오후 저소득 가정 106세대에 부산은행 직원들이 직접 방문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박경희 부산은행 상무는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꾸준히 나눔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남부산농협, 보행기·화재경보기 기탁

남부산농협에서 지난 11일 추석을 맞아 보행보조차 21대 및 화재경보기 200개(4,850천원 상당)를 기탁했다. 기탁된 보행보조차는 관내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어르신 21세대에, 화재경보기는 저소득층 100세대에 전달됐다.

조명수 조합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남구 주민을 위해 조금이나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고, 보행보조차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튼튼한 다리와 쉼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남부경찰서, 추석맞이 온정나눔



남부경찰서는 지난 9일과 10일 대연동·나사한 발달장애인복지관과 용당동·은새마을 아동공동생활가정’에 90만원 상당의 위문품 및 위문금을 전달했다.